

아시아 등 신흥시장 여전히 유망

새해가 밝았다. 모든 일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첫 출발을 잘할 경우 한 해가 편안해지고 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다. 반대로 계획을 잘못 세우고 실천도 따라주지 못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맘때쯤 올 한 해의 재테크 전략을 탄탄히 세우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요령을 알아보자.

2008년 재테크에 필요한 쉼표와 투자전략

우선 2008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따져보자. 큰 그림이 잘 그려져야 구체적인 부분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일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재테크를 해야 당황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재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등에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나라밖으로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한편 2007년 한 해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경제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여파나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2008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은 중요한 이벤트인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올인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라

글 김재영(한국투자교육연구소 소장 / '주식부자들의 투자습관' 저자)

그렇다면 2008년 새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07년, 2006년을 맞이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어느 해든 새해를 맞이할 때 명심해야 할 최고의 재테크 지침은 바로 “꾸준히 투자하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그때 ‘갈아타기’식 투자로 대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뿐더러 결과가 좋지 못하다.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장기투자이며, 장기 투자의 골간은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꾸준히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매달 얼마씩 떼어내 투자 상품에 자동 이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흔히 적립식투자나 정액분할투자법이라고도 불

린다. 적립식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를 지속하면 된다. 새로 투자를 할 요량이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직장인은 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들어맞는다.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적립식투자를 중단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시장 변동은 모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변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에서 어떤 때는 “중국펀드가 안 좋다”, “인도펀드가 안 좋다”고 떠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이나 인도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깨끗히 이겨내고 성장해왔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그런데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펀드를 환매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절대로 '올인'하지 마라

2008년에는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10.1% 성장하는 것을 필두로 인도 8.2%, 베트남 7.8%, 인도네시아 6.1% 등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아시아 신흥국들 전체적으로는 평균 7.7%에 달한다. 반면 선진국들의 성장세는 2008년에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1.7%, 일본이 1.8%, 유럽연합(EU)이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2008년 투자의 동력은 아시아 신흥시장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점쳐진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 ‘올인’해야 할까? 답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으로 예상된다 해도 투자 상품은 엄연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장밋빛 전망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참담한 결과

를 맞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8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망할 것 같다는 분야나 금융상품을 수시로 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것저것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정 상품에 ‘올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만 좇아서 안 된다. 항상 잘못될 경우를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최소한 투자에서는 ‘보수적인 투자’가 미덕이다. 참고로 성장세가 예상되는 해외 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전체 자산의 최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해외 투자 환경이 좋아져서 그나마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그 비중 내에서도 여러 국가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형태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적립식투자가 좋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그리고 잘 아는 분야에

중소 벤처기업에 다니는 이동민 과장은 회사 일에 쫓기느라 마땅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4년 전 모 증권사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수익률 역시 직접 투자를 한다는 주변의 동료들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 이처럼 아직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투자하지 말고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즉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다. 간접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은 펀드다. 최근에 펀드가 유행하는 것은 자신은 현업에 충실하고 투자는 금융과 재테크에 밝은 금융전문가에 수수료를 주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 알아서 할 만한 실력이나 자신이 없다면 간접투자를 적극 활용하자. 또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투자 상품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단순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가진 상품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간접투자 상품에 단순하게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직접 투자할 생각이라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전자부품업체에 다니는 유선호 씨는 전자부품 주식에만 주로 투자한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라서 어느 업체의 실적이 좋은지, 어느 업체가 사정이 나쁘지 금세 알기

때문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투자의 제 원칙으로 “잘 아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는 말을 곧잘 한다. 자신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어야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판단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이해할 수 없는 투자 상품은 사소한 일만 생겨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진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을 자신이 사서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거나, 평소에 자주 접촉해서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주로 투자할 분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8년 재테크는 국내외적인 경제 변수에 주목하되 자신만의 재테크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유망할 것으로 점쳐지는 투자 상품은 아시아 신흥시장과 러시아, 동유럽,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망할 것 같다고 ‘올인’해서는 안 되며 항상 분산투자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자.